Ⅰ. 주간 경제 동향

1. 경제 개관

○ (외환시장) 엔화 강세의 여파로 원/달러 환율이 급락(평가절상)하고 있지만, 하락세의 장기화 여지는 높지 않음
○ (자금시장) 회사채 수익률은 10%대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며, 대내외적으로 좋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어서 당분간은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외환시장

- (환율 급락) 원/달러 환율 1,330원대로 급락

· 10월 9일 현재 원/달러 환율은 1,333.0원을 기록하여 단 하루만에 30원 가까이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임
· 엔/달러 환율이 110엔대로 급락했던 것이 원/달러 환율이 급락한 주요 원인임
· 외채 상환용 달러 수요가 감소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등 달러화 수급 조건이 개선되었던 것도 환율 급락세의 배경으로 작용함
·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직접적인 원인은 대형 헷지펀드들의 엔화 차입 상환 움직임 때문임
· 여기에 미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그에 따르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, 유럽의 금리 인하 및 일본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중첩되어 엔화 매입세를 부추겼음

- (환율 하향세의 장기 지속 여지는 낮음) 원/달러 환율은 엔/달러 환율의 추이에 강하게 영향받을 것임

· 최근의 엔화 강세 양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. 최근의 엔화 강세는 단지 미국 경제의 악화 조짐에 따른 반사 작용에 불과하기 때문임
· 일본 경제가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태를 보이고 있고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등 일본 경제 기초여건의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임
· 그러나 미국 경기의 둔화와 일본 경제의 최악 침체국면 탈출 등이 전망되므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더라도 140엔대 이상으로 대폭 절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

이에 따라 원/달러 환율도 1,400원대로 크게 급등할 여지는 많지 않음

□ 자금시장

- (지표 금리 하락세 지속) 회사채 수익률은 10%대에서 소폭 하락

· 10월 9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10.30%를 기록함

· 본원통화 공급 확대, 콜금리 7%대 인하 등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과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의 금리 인하와 여타 선진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고조 등 호조건이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지속

· 콜금리는 6%대까지 하락함에 따라 금융권의 단기자금이 투신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채권 매수 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, 10월 회사채 발행 물량이 9월의 발행 실적 6조 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량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회사채 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

· CD 및 CP 유통수익률은 9%대 유지

- (소폭 하락세 지속 전망) 금리 하락을 가능케 했던 대내외 여건의 지속으로 당분간은 소폭이나마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

(채 창 균 ckche@hri.co.kr ☎724-4031)